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4

충현의 만나

2001

가정예배 · 시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4

2001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시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 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4월의 생명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 가장 분주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농부들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며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파랗게 올라오는 새싹을 보며 기뻐하겠지요.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었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그 놀라운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새로운 생명은 죽음으로 시작되며, 많은 열매는 죽음의 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롬 5:18).

사월(四月)!

황무한 들판에서 새롭게 돌아나는 생명의 감격을 맛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의 싹을 틔우시는 부활의 주!

그 분이 우리네 거친 영혼을 경작해 주실 날을 소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01년 4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시편 서론

구약에서 가장 긴 책인 시편은 본래 유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찬송이나 기도의 지침서였습니다. 때문에 시편들은 유대 민족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찬양의 매개였던 경배 및 예배용 찬송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구약 역사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시편의 유형을 ①슬픔의 시(3-7, 9-10, 22, 32, 42-44, 51, 60, 94, 102, 137편), ②감사의 시(18, 30, 32, 34, 56, 75, 107, 118, 138편), ③찬송의 시(19, 47, 92, 96, 103, 105, 111, 113-114, 117, 146-150편)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범주는 모두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은 율법서와는 달리 인간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것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이 고백과 아울러 시편은 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 찬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깊이 그를 섬겨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사야서와 더불어 시편이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에게 가장 자주 인용된 책이라는 사실은 전혀 놀랄일이 아닙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의 여러 다양한 면모들(시 22:1; 막 15:34)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의(시 110:1; 행 2:31-36)를 설명하기 위해 시편을 자주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 8, 22, 40, 45, 110편과 관련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편이 예언적이거나 메시아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생과

사역의 전부를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구자들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는 이 찬양들, 탄원 시들, 교훈 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이 시들을 그들의 삶과 예배의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충현의 성도들 역시 이 시편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마음 중심으로 하여 주님의 우주적인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분을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요내용

1. 사람과 창조에 관한 시편 (1~41편)
2. 이스라엘과 구속에 관한 시편 (42~72편)
3. 예배와 성전에 관한 시편 (73~89편)
4. 우리의 지상 체류에 관한 시편 (90~106편)
5.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 (107~150편)

• 각 부문은 각기 찬양 송영으로 끝나며(41, 72, 89, 106편), 마지막 부문에는 송영이 여섯 장이 있습니다(145~150편)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란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은 다윗의 노년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9, 18절). 여전히 그의 주 위에는 그의 대적들과 원수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조롱했습니다(10-11절). 그때 그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곤 기도했습니다. 그는 먼저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1-2, 4, 9, 12절). 또한 현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13절). 그런데 다윗,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반석이요 산성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3, 5-6절). 그러므로 그는 먼저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만을 증거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7-8, 14-17절). 그리고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의 끝을 맺습니다(19-24절).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도 환란이나 핍박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호소합시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하루 하루 승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환란을 극복하는 비결은 위로와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핍박이나 환란이 있을 때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이며 그의 다스리심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써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왕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후계자를 위하여 짧은 기도로 시작합니다(1절). 그리곤 그의 통치의 영광과 위대함에 대해서 길게 증거합니다(2-17절). 우리 성도들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나라는 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공의로 그의 백성을 판단하십니다(2절). 저는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을 것입니다(4, 12-14절). 그의 다스리심은 땅 끝까지 이르며(8절), 온 나라의 왕들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10-11절). 또한 그의 나라 백성들은 그의 구속과 은혜를 인하여 항상 그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것입니다(14-15, 18-19절). 만 백성이 그로 인한 복 때문에 그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17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인한 복음이야말로 참된 복이요 그 분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왕중왕(王中王)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높이며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혹시 우리는 지금 자신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과 평강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이는 하루의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우리 성도들의 왕중왕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왕중왕되시는 우리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으로 인하여 때때로 신앙적으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 때문에 낙담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던 성전 성가대장 아삽의 시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낙담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합니다(2절). 그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1절),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반면(3-12절), 의인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14절).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주 안에서 의를 위하여 살아왔던 삶이 헛된 것이 아닐까 회의합니다(13절).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회의에 대한 해답을 깨닫습니다(15-17절). 그것은 악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임을 본 것입니다(18-20절). 그는 비로소 핍박받을지라도 의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무지했는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21-23절). 그리하여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참된 복이며, 주 외에 누구를 사모할 수 있으리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의 끝을 맺습니다(24-28절).

주안에서 행하는 의의 삶은 비록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굳센 성도들이 됩시다.

의인이 경건한 삶으로 고난 당할지라도 상급이 있는 복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의인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증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참으로 원치 않은 환란과 고통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참된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성가대장 아삽이 마스길로 노래한 시편입니다. 때는 아마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갈대아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멸망당하는 시기로 추정됩니다. 시인은 이 슬픔을 애가의 기도시로 노래했습니다. 지금 그가 괴로워하는 것은 다름 아닌 원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짓밟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7절).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먼저 원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어떻게 행했는가를 밝힙니다. 그들은 성소와 모든 회당을 불살랐고 주를 비방하고 능욕하였던 것입니다(3-8, 1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2, 20절). 또한 지금 자신들은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없으므로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9-10절). 그런 후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왕이시므로 힘과 능력을 발하시기를 간구합니다(12-17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으로 시의 끝을 맺습니다(1, 19-23절).

혹시 우리들도 세상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어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기 때문입니까?

고난 당하는 성도의 참된 자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지 않도록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지 않도록 회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세상에 있는 죄악된 인간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의 교만함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구속한 주의 백성들 안에 더욱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고백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고 있음을 아뢰입니다(1절). 그런 후 그는 사람들에게 교만의 뿔을 들지 말 것을 외칩니다(4-5절). 왜냐하면, 첫째는 높이는 일이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므로 결코 높여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6-7절).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우시므로 정한 기약의 때가 되면 정의로 판단하실 때 교만한 자를 결코 용서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2-3절). 시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면서 그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악인에게 술잔을 부어 마시게 할 때에 그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모든 찌꺼기까지 다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8절). 그리하여 시인은 악인의 뿔은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시는 이 위대한 공의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것임을 고백함으로 시의 끝을 맺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영혼 속에는 교만함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시다. 또한 높아지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의인의 뿔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버리십니다.

기도 제목 / ① 교만의 뿔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인간은 참으로 간사한 존재입니다. 평안하고 풍요로울 땐 교만하여 감사할줄도 모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곧 죽을 것 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간사하고 연약한 성품을 아시고 아슬아슬한 고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성도의 삶은 곤고하고 실패한 삶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앓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막강한 군사력으로 포위했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완전히 멸망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왕하18:17-19:37). 1-3절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깨뜨리셨음을 말합니다. 4-6절은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10절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11-12절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서원한 것을 이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앓수르가 침입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 앞에 이스라엘은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무장한 앓수르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서 당신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든 뒤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는 어둠의 권세의 무서운 도전을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고 순간 순간을 견딘다면 힘들고 곤고한 이 땅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피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그 누구도 환난을 좋아하지 않으나, 우리의 삶은 환난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의 인생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하는 것입니다.

본 시에서 시인은 개인적 혹은 민족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응답이 없자 처음에는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절망하였으나(1-9절) 하나님께서 과거에 선민 이스라엘에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회고하는 중에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은혜 베풀기를 쉬지 아니하심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까이 가게 됩니다(10-20절).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망각할 때 환난을 만나게 되면 영적인 갈등이 온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은 지극히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어떠한 생각과 자세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영원한 재앙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여 소망을 주기 위하여 때로는 환난을 직접 주시기도 하시고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렘29:11). 따라서 성도의 환난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서는 선조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저들만이 알고 있기를 바라지 않고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수해서 저들도 동일한 은혜를 얻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실수나 범죄함을 후손들이 알고 교훈을 삼아 그러한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시인은 본문 1-8절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소개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하기 위함이며, 열조처럼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말합니다(6-8절). 그리고 9-64절을 통해서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던 여러 가지 죄악상들이 낱낱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9-11절에서는 에브라임의 죄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12-31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능력 속에 거하면서도 불신과 불평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32-41절에서는 회개치 않는 죄와 거짓으로 회개하는 완악하고 가증한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6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상숭배로 갚은 이스라엘의 배역의 죄를 말합니다. 65-7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심각한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긍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순종하며 이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신 은혜의 역사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좌절과 불평의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그 일을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본문 속의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인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특별한 것은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자신들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성전이 더럽혀지고 주의 성도들이 패망으로 인해 조롱받는 민족적 멸망이라는 위기상황을 말하며(1-4절)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주의 성도들을 구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5-13절). 시인은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나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수치를, 그리고 그 보다 하나님의 수치를 우선적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소중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의 종들이 죽어 공중의 새들의 밥이된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보면서, 나를 위협하며 달려드는 어두움의 권세 앞에 꿈쩍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기도 제목 / ①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언뜻 보기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대단히 강한 존재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인간만큼 약한 존재도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겁과 두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본 시는 기원전 822년 북이스라엘이 앓수르에 정복당한 후 포로로 잡혀간 민족적 비극을 배경으로 지어진 남쪽 유다 백성의 중보기도입니다. 1-3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지파들을 내세워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호소하고, 4-7절에서는 주의 백성이 당하는 비참한 고통을 진술하며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8-19절에서는 포도나무와 농부로 비유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근거로 긍휼과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시의 중요한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괴롭고 힘든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힘을 잃고 적당히 세상의 타락의 물결에 휩쓸려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도 실패할 수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행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망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잠 24:16). 이는 성도가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인생은 들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옵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상숭배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것, 내 행복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삶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며 스스로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3절을 근거로, 이 시편을 초막절 축제 때 불렀던 찬송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1-4절). 초막절은 출애굽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일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5-7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배 받고 찬양 받으실만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9-10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신이라면 함께 믿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박해졌고 임의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실 분은 여호와뿐이었습니다(10절). 그들을 만족케 하실 분도 여호와뿐이었습니다(11절). 그들은 겉으로는 여호와께 복종하는 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우상 신을 향하여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 우상숭배와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택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형벌과 재앙의 날들이 찾아온다는 사실(15절)은 아이러니입니다. 이스라엘이 초막절 축제 때마다 이 시편을 노래함으로써 이 사실을 상기하고자 했던 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큼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신앙인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청종하며 그 도(道)를 행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세상의 헛된 우상 신과 세속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정치' 혹은 '정치가' 라는 말을 들으면 으레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말은 '불신' 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정치에 대한 불신은 권위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들을 존경할만한 사람들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본 시편의 저자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인간 통치자들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와 정의의 실현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불공평한 판단을 내리며 편파적으로 악인을 두둔합니다(2절). 그 속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고아들이 희생을 당합니다(3-4절). 그들의 무지로 인해 나라(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5절). 시인은 불의한 통치자들의 만행을 고발하면서 그들 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6-7절). 이 심판을 통해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라(땅)와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8절). 통치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천 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기를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대하1:10). 불신이 커가고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 가는 시대에 이 땅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통치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 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행 9:4).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들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주의 백성들을 치려 하여 간계를 꾀하는 자들(3절)을 가리켜 ‘주의 원수’, ‘주를 미워하는 자’ (주를 한하는 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2절). 그들은 주를 대적하는 이 일을 위해 하나가 되어 언약을 맺습니다(5절). 시인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침묵하지 마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1절). 사사시대에 기드온과 드보라를 통해 미디안과 가나안에게 행하셨던 것처럼(9-12절) 저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13-17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깊은 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이 고난 당하고 핍박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치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일어서실 것입니다. 그 날에야 비로소 저들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18절).

주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 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고난과 핍박당할 때에 잠잠치 않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발걸음이 즐거우십니까? 말씀을 읽기 전에 한 번 자문(自問)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여겨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1-2절). 시인은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으로 성전 봉사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 문지기 노릇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10절). 그러나 그는 주의 전에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참새와 제비처럼 진정한 안식을 느낍니다(3절). 성전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6절). 주의 궁정에 있는 이 즐거움에 비하면 세상은 악인의 장막 같습니다(10절). 하지만 시인의 기쁨은 성전의 화려함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지 않다면, 한 주간의 삶이 치열한 삶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편안하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주의 전을 사모할 마음을 주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인간에게는 잘못을 반복하고 다시금 죄악으로 돌아가려는 아둔함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고 쓰라림의 고통을 알면서도 개가 그 먹던 것을 토하여 다시 먹는 것처럼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항상 직면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포로된 지경에서 건지신 적이 있습니다(1-2절). 그는 오래 참으시는 중에 그의 분노를 거두셨습니다(3절).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은 동일한 죄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인은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와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4-7절).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한결 같습니다. 다시 망령된 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8절).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바라는 자들을(그를 경외하는 자, 9절) 돌아보신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됩니다. 인간을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10-13절).

인간이 능력이 있어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항시 죄악으로 돌아가려는 아둔함에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도 구하고 바라는 자를 거절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인간은 그 긍휼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다시 망령된 데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이제는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망령된 행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망령된 삶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악인들이 자신을 꺾박하고 자기의 생명을 해 하려는 와중에서도 좌절하지 아니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피난처요 구원자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은 크게 3단락으로 나누어 집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 7절까지로 위기 상황에 처한 시인 자신의 간구를 들으셔서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보존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8절에서 13절까지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경건한 자에게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은 14절에서 17절까지로 교만한 자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함으로 본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본시를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간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시며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며(5절), 사랑이 넘치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15절). 그러기에 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4절),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10절) 마치 파수꾼이 동터오는 새벽을 기다리듯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17절).

우리도 다윗처럼 뜻하지 않게 악한 자들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위기에서 용기를 얻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부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살아 계신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구원자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생활(B.C.586-538년)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와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이때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자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예루살렘(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 예언적으로 노래한 시로써 고라 자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본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처소로서 시온에 대한 찬양입니다. 둘째 부분은 4절에서 6절까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인해 장차 만민이 시온 백성이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적 왕국의 건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시온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시온에서 흘러내리는 구원의 샘물로 인해 만민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탄생될 우주적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은 7절로써 시온 백성이 된 만민이 감격에 겨워 찬양하게 될 신앙 고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궁극적인 어려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결되는 것이기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을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 지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은 솔로몬과 동시대의 사람인 에스라 사람 헤만(왕상4:31)의 시입니다. 시인은 불치병에 걸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시인의 탄식과 호소가 애처로울 정도로 구절 구절마다 배어있고, 그는 숨이 넘어가는 듯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탄식 중에서도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첫째 부분은 1절과 2절로 써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고통 중에 처한 시인이 구원을 호소하는 자신의 간구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부분은 3절에서 9절까지로 시인 자신의 곤고한 처지와 고통에 대한 절규입니다. 셋째 부분은 10절에서 18절까지로 죽음과 같은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됨을 따라 겪게 되는 시인의 신앙적 갈등에 대한 진솔한 고백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수난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것만이 문제임을 토로하며(14절),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이시기를 주야로 빌고(1절) 날마다 빌며(9절) 아침마다 빌고(13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망에 처한 것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 인생의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항해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귀중한 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여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은 솔로몬과 동시대의 인물인 에스라인 에단(왕상4:31)에 의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그는 적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위기 상황에서 다윗언약(삼하7:5-16)에 근거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본 시를 지었습니다. 본문은 크게 4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 18절까지로 언약의 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먼저 1-4절까지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이어 5-7절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한 찬양입니다. 다음으로 8-14절에는 당신의 지으신 천지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끝으로 15-18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에 대한 기대입니다. 둘째 부분은 19절에서 37절까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셋째 부분은 38절에서 51절까지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하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염원하는 간구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다시 자신들의 환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데 있음을 고백하는 부분(38-45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속히 구원을 베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부분(46-51절)으로 나누어집니다. 마지막 부분은 52절로 본시 전체를 마무리하는 송영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청종치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심을 들어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영구히 폐하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으로 계승, 발전시키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정은희 선교사(아프리카)와 허용구 선교사(르완다)가 현지에 잘 적응하며 뿌리를 내리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은 모세의 시로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적 행동으로 인해 저들 모두가 광야에서 진멸되리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선고가 있을 때(민14:11, 12)에 당시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모세가 지은 '민족 애가'입니다. 본문은 유한하며 무상하기 그지없는 인생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극명하게 대조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진정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뿐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집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 12절까지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이 순간에 불과한 인생에 대한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 유한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교훈함과 동시에 인생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뿐이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13절에서 17절까지로 유한하고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대신 금홀과 은총을 베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 모세는 인생은 무상하며 헛될 뿐이고 그러한 인생을 위한 수고는 슬픔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인생 가운데서는 그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함과 동시에 오직 영원과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진정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소망은 영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뿐이심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홀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돕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때가 바로 믿음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안전을 보장받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분명치는 않으나 본문은 성도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 교훈적, 신앙 고백적으로 찬양하는 전반부(1-13절)와 시인의 그 같은 믿음을 뒷받침해 주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약속에 대해 언급하는 후반부(14-1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 아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평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14절).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말씀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품안에 평안히 거하여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은 인간 행위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엡 2:8).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결길로 나가기보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저를 귀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받아주소서.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게 하소서. ② 권요셉 최은아 단기선교사(아프리카)가 원주민 교회 사역, 신학교 및 아랍어 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면(전12:13)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의 성전 예배 때에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꼭 있어야 할 내용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언제입니까? 아침부터 밤까지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찬양합니까? 그것은 주께서 성실과 인자하심으로 베푸신 행사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권능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1-6절)과 악인의 멸망(7-9절) 및 의인의 형통에 대한 시인의 확신 고백(10-15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 위대하심, 존귀하심, 공의로우심 등과 같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근거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즐거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삶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깨닫게 하소서. ②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종종 '과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잘 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1절)" 그렇습니다. 세상은 분명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이고,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 위의 하늘에는 영원한 왕이 앉아 계십니다. 충성된 백성들에게 그들의 왕의 영광 중에 앉으신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외쳐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통치는 영광과 함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곤란속에서도(2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 계신 여호와와 능력은' 바로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심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는 그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분이야말로 진정한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삶 속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믿고 경외하였던 그분이 또한 오늘날도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섬기기에 충분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 존귀히 여기고 그분께 절대적인 순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영원토록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② 추진회, 이소영 평신도 단기선교사(스리랑카)가 영육이 강건하고 현지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까? 혹시 나와는 상관없다 하여 무관심으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본문은 백성들이 압제자의 속정으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상황속에서 압제자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공의의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써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악인들의 압제와 강포로 인해 붕괴되어 가는 상황을 목격한 시인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호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악인의 행악에 대해 고발하고 그 보수를 호소하는 전반부(1-7절)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중반부(8-11절)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에 대한 확신을 신앙 고백적으로 찬양하는 후반부(16-2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인의 간구는 개인적인 증오와 미움이 앞선 감정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에 분노하고 악에 항거하는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정당한 요청이자 악을 미워해야 할 성도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의분으로 악인들의 범죄를 신랄하게 통박했던 선지자들의 외침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수의 하나님을 통해 베풀어지는 도움과 위안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궁극적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환난의 날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들(아프리카의 강기엽, 이집트의 허요셉)이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종종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또는 우리에게로 사람들을 모이게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주로 합니까? 모임의 주제와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사는 이야기나 가족, 자녀들의 이야기가 주된 주제는 아닙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까?

본문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전반부 1-7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의 초청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이유를 언급하고, 이어 후반부 8-1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함으로써 바른 예배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1절).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또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는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임 자체가 그분의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서든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7절).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세상 만민들로부터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빛과 소금의 삶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 위에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② LMTC(평신도 선교훈련원)의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평신도선교사들이 양성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 민족만큼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흥에 겨우면 춤과 노래를 즐겼습니다. 노래는 나의 감정과 생각을 아주 깊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오늘 저자는 그 노래를 여호와께 부르라고 합니다. 즉 나의 감정과 생각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고후 5:17).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노래는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새 노래입니다(1절). 이러한 구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게만 된다면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이 그 창조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 것입니다(3절). 여호와께 찬양하는 것은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이나 예복의 아름다움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은 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나의 기도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신실함, 열정과 순결 가운데 드러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9절).

만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온 영혼이 떨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나아갑시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또는 봉사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며 나아가십시오.

즐거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살다보면 안타깝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의뢰하기에는 많은 재정적 부담 때문에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불완전한 법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변명도 필요 없고, 할 기회도 없이 오해를 사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야 답답하지만 하소연 할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급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분의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분의 의와 공평은 구름과 흑암에 둘러싸입니다(2절). 구름과 흑암에 둘러 있는 것은 그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그 은혜의 목적을 감추시고, 끝에 가서야 그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영광을 가리시고 그 뜻을 숨기시는 은혜를 경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분은 공평과 의를 엄격하게 지키시며 행하시는 분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속성이며 '공평'은 그분의 모든 행위의 표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보거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분은 결코 자기를 바라는 나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합니다(12절). 왜냐하면 그 분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기 때문입니다(11절).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일상의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면, 그가 처리하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습니다.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어떤 노래는 자꾸 불러도 싫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노래를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노래의 리듬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그 노래의 가사에 동감한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에 동의를 하고 '내가 그렇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도 지금 노래에 심취하고 있습니다. 수금과 음성으로, 나팔과 호각을 동원해서 노래를 합니다(5-6절). 이런 멋진 오케스트라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입니다. 그 분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기이하게 사셨고, 기이하게 죽으셨고, 기이하게 부활하셨으며, 기이하게 승천하셨습니다. 그 분은 기이한 능력으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신성한 능력에 힘입어 사도들로 기이한 일을 행하게 해서 온 세상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분을 주라 부르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은 고독한 싸움을 통하여 죄와 죽음과 지옥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분은 그의 '오른손'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오른손이란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말합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 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4절).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만이 큰 소리를 발하며 기쁨의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내가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느 자리의 흥을 돋우기 때문입니까? 개인적인 신명을 위해서? 그 보다 우선되고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 일을 온 세상에 펼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하십시오.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노래, 나의 찬송 내가 주를 노래합니다. ② 충현의 교회학교를 통하여 천국일꾼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나의 현재와 미래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기억뿐 아니라 나쁜 기억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나쁜 기억은 내가 조심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역사입니다. 이제까지 나의 인생길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돌아보십시오.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3절). 그 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갚으셨고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갚으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빈틈없이 정확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두려운 면이든 자비로운 면이든 그의 모든 속성에 대하여 찬양을 합니다. 모세는 주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론은 자주 주의 거룩한 불이 속죄의 제물들을 삼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집안이 사악한 행위로 인해 주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하나님의 진노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에게 행하실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분은 심판 가운데서도 중보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8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분은 나의 잘못을 아시지만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을 잊으시며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나의 기억 속에 늘 살아계시옵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어떤 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특히 무엇인가 간절히 알고자 했던 것을 알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탐험가가 목표물을 찾았을 때나 연구하는 사람이 고심 끝에 결과를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좋아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맛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음식을 잘 알고 요리를 하거나 먹어야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알지 못하면 믿기도 힘들고 찬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3절)라고 엄숙하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분은 나를 지으신 자시오 나는 그 분의 것입니다. 그 분은 나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며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선언하는 것은 그 자체가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헤아려 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분께 최선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칠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그의 성실하심을 알았고, 우리의 후손들도 알 것이며, 후손의 후손들도 알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곧 신앙이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을 만나, 그 분을 아십시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하소서. ② 이 땅의 소외받은 자를 위해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구역공과 공부에 대해서 (꼭 읽어 보세요 !)

- ① 2001년도 2월부터 구역성경공부시간에는 매 주일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더욱더 준비된 마음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구역공과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가면서 - 본문의 배경을 설명한다.

머물면서 - 본문에서 전달하려는 목적을 문제풀이 형식으로 공부한다.

나오면서 - 본문에 대한 결론 및 적용을 생각해 본다.

- ② 먼저 각 교구의 목사님들께서 한 달 동안 공부할 내용을 미리 다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구역장님들에게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장님들께서 구역공과를 준비하시다가 의문이 생기시면 담당 교구 목사님께 문의하셔서 해결하시고, 말씀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도 하시길 바랍니다.

- ③ 각 교구의 구역장님들께서는 '주간충현'에 실리는 다음 주일 설교의 내용을 읽으시면 구역 성경 공부를 더욱 효과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충현'에 실리는 설교가 그 주간에 실시되는 금요구역예배의 공과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일 미리 제시되는 설교를 읽으시고, 구역공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④ 각 구역에 속한 성도들께서도 '주간충현'의 설교를 읽으시고 구역공과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공과의 답이 '설교' 안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설교 내용을 잘 소화하시면 구역공과는 저절로 이해하시게 됩니다.
- ⑤ 구역성경공부 하시면서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풀거나, 그 동안 배우거나 들었던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면서 연구하십시오. 그래도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성경은 수학문제처럼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요구하는 핵심에 충실하셔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삶에 열매를 맺게 하면 될 것입니다.
- ⑥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역성경공부가 모임자체로 목적을 두는데서 벗어나서 더욱더 단단한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견해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구의 지도자와 구역장, 그리고 구역원 모두가 말씀 연구에 마음을 집중시키고 실제로 예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충현의 모든 구역에서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구역성경공부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충만함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 1 과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찬송 / 88장(내 진정 사모하는)

본문 / 히 13:7-9

들어가면서(서론)

몇 해 전에 저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지 풀러 교수를 초청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 히브리서에 담긴 복음의 정수를 간결하게 맛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서의 주제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2장은 아들과 천사, 3장-4장은 아들과 모세, 5장-7장은 아들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6장-10장 18절은 아들과 대제사장의 사역, 그리고 10장 19-13 장은 아들과 우리의 삶이라는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색칠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신앙의 이탈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마귀의 음모가 쉬지 않고 지속된다는 증거이겠지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도 이러한 원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자신들이 새로이 찾은 신앙을 포기하고 박해를 피하기 위해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익명의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의 종교보다,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월등하게 뛰어나심을 변증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체계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는 영지주의나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유대인 신자들이 더욱 복음의 확신과 증거에 힘쓸 것을 격려할 목적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를 공부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본질이 사라진 복음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며 경험하지 못하면, 분명히 율법과 예식으로 되돌아가게 되거나 다른 사상으로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던 유대 종교지도자들처럼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율법이나 예식은 본질적으로 그 기능자체가 거룩을 평가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십자가를 붙들게 될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깊은 신뢰와 인격적인 관계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되셔야 할 지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 7절 -

② 8절 -

③ 9절 -

2. 우리는 분명히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 스스로 모든 면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① 과학과 기술면에 있어서의 변화 -

② 경제에 대한 변화 -

③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 -

④ 제도와 인간관계의 변화 -

⑤ 자연의 변화 -

3. 인간에 의해 고안되고 발전되는 모든 것에서 - 대표적으로 과학과 기술, 사상과 철학, 그리고 제도와 관계 등 -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① 히 13:8 -

4.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은 변하지 않는다.

- ② 예수 그리스도의 ()은 변하지 않는다(요15:9,13).
- ③ 예수 그리스도의 ()는 변하지 않는다(눅23:34, 사1:18).
- ④ 예수 그리스도의 ()는 변하지 않는다(마28:18).
- 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를 빼앗기지 않으신다(요10:28).
- ⑥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를 () 않으신다(히13:5).

5.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의미는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변함없는 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 ① 예수 그리스도는 ()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변함없으시다(딤후1:15).
- ② 예수 그리스도는 값없이 ()를 주시려는 목적이 변함없으시다(계22:17).
- ③ 예수 그리스도는 () 보내시려는 목적이 변함없으시다(요20:21).

나가면서(결론)

가장 값진 것이라는 의미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도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마모되어 없어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을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셨다면 이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1:21).

제 2 과

예수님의 발 앞에

찬송 / 458장(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본문 / 눅 8:26-39

들어가면서(서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따뜻한 우리 집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공원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헬스장 또는 열대야 섬들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도박장이나 나이트 클럽을 좋아할 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장소들 중, 오직 한 곳 만이 최고인데 그 곳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앞입니다. 왜 이곳이 최고의 장소일까요? 그 곳은 가장 큰 축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곳이 정말 어떠한 장소인지 잘 살펴봅시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 ① 사건이 벌어진 장소(26절) -
- ② 귀신들린 자에 대한 소개(27절) -
- ③ 예수를 만난 귀신의 반응(28절) -
- ④ 예수께서 하신 일(29절) -
- ⑤ 귀신의 정체(30절) -
- ⑥ 귀신들의 간곡한 부탁(31-32절a) -
- ⑦ 예수의 승낙과 결과(32b-33절) -
- ⑧ 동네 사람들의 반응(34-37절)
- ⑨ 고침 받은 자에 대한 분부와 결과(38-39절) -

2. 본문에서 35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살펴본 결과 '예수의 발 아래'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① 눅 7:38-48에 나타난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앞은 ()의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
- ② 마 15:30-31에 나타난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앞은 ()의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③ 막 5:22-23과 눅 17:16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앞은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눅 8:35, 마 11:28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의 발 앞은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⑤ 계 1:17, 22:17에 묘사된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앞은 ()와 ()의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⑥ 히 2:3을 살펴보십시오.
예수의 발 앞은 위대한 ()의 장소입니다.

나가면서(결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발 앞에 나아왔던 모든 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주님에 대해 간절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렸고(막5:22),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으며(막7:25), 죄인인 여인은 예수의 발 아래에 향유를 붓기도 했습니다(눅7:45-

47). 오늘 배운 것처럼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고(눅 8:35), 마리아 역시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눅 10:39). 그리고 고침 받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사례하였습니다(눅 17:16).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만일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면 주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된 이들처럼 주님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의 발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발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 발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발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홀로 가시발길을 가신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 앞'이란 한 마디로 '은혜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에게 의해 전폭적으로 구원받으며, 오직 그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 은혜의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제목 :

본문 :

제 3 과

부활하신 예수

찬송 / 147장(주 달려 죽은 십자가)

본문 / 눅 24:13-35

들어가면서(서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들 중 하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날은 바로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바로 승리의 날, 큰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첫 열매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필적할 수 있는 그 어떤 날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위대한 날을 제자들은 의심했지만 원수들은 믿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부활의 날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의심하십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 복음서들은 그의 모습을 다른 이들을 향해 긍휼과 동정과 자비와 수용과 격려

와 돌봄과 사랑을 베푸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새 생명은 무엇인가요? 오늘 다시 사신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살펴봅시다.

머물면서(본론)

1. 오늘 본문의 배경은 눅24:1-12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해봅시다.
2.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 ①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시간(13절의 '그날' = 24:1) -
 - ② 예수께서 두 제자와 만나신 장소(13절b) -
 - ③ 두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16절) -
 - ④ 두 제자들이 나누던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19-24절) -
 - ⑤ 예수께서 두 제자들에 대해 보이신 반응(25-26절) -

⑥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위해 행하신 일, 두 가지(27절, 30절) -

⑦ 두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 세 가지(31절, 32절, 33-35절) -

3.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① 예수께서는 두 제자들과 ()하셨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15절).

② ()은 예수를 제자들과의 ()를 멀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옆에 가까이 걸으시듯 말입니다. 그분은 겸손히 그의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28,29절).

③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을 ()하셨습니다. 그 분은 왜 제자들이 그렇게 슬퍼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예수께서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17-25절). 그의 제자들은 이 끔찍한 정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믿었습니다(17절).

④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32

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불사르시며, 우리의 마음이 참된 진리와 참된 사랑을 향한 갈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십니다(32절).

나가면서(결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고전15:35,36). 사도 바울은 부활을 씨앗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가 땅에 묻혀서 썩어야 새로운 싹을 피우고 꽃이 피듯이, 우리도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생 뒤엔 죽음이 있듯이, 죽음 뒤엔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이 썩으면 새로운 싹이 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죽은 씨앗에서는 싹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며,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대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최대의 승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께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제 4 과

그의 능력

찬송 / 101장(천지에 있는 이름 중)

본문 / 마 19:16-26

들어가면서(서론)

율법을 잘 준수하며 살아온 한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물어왔습니다. 그 청년은 율법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질문은 바늘 구멍으로 낙타를 통과시키겠다는 각오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라도 낙타를 바늘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노력이나 힘,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부자들, 즉 돈의 노예가 된 이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의 힘을 더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더욱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즉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믿음 없는 부자 청년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 ① 16절 : 청년의 질문은 무엇인가?
- ② 17절 : 예수의 답변은 무엇인가?
- ③ 18-20절 : 청년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 ④ 21절 : 예수는 무엇을 지적하셨나?
- ⑤ 22절 : 청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가?
- ⑥ 23-24절 : 예수의 최종적인 판결은 무엇인가?
- ⑦ 25절 : 구원에 대한 제자들의 의문은 무엇인가?
- ⑧ 26절 : 구원에 대한 예수의 교훈은 무엇인가?

2. 본문말씀 가운데 26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① 하나님은 ()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신적인 권능은 ()하며 ()할 수 없습니다(마 9:26).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과 ()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하나님은 ()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요 3:16).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의미는 ()하고 ()한 것을 의미합니다(히 7:25).

③ 하나님은 우리를 ()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유 1:24을 보면 우리를 ()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전 10:12에는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 조심하라”고 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당부입니다.

④ 하나님은 우리를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행 20:32에서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께 부탁하노니 그 ()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 즉 성화(sanctification)는 오직 ()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롬 14:4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쉰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매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있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⑤ 하나님은 우리가 ()과 ()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 2:18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기가 ()을 받아 ()을 당하셨은즉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⑥ 하나님은 우리에게 ()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후 9:8에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엡 3:20에서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이나 ()에 더 ()능히 하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⑦ 하나님은 ()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4:21에는 “()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가면서(결론)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 여전히 필요 없는 슬픔에 빠져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면 슬픔이나 고난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예수께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중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게 될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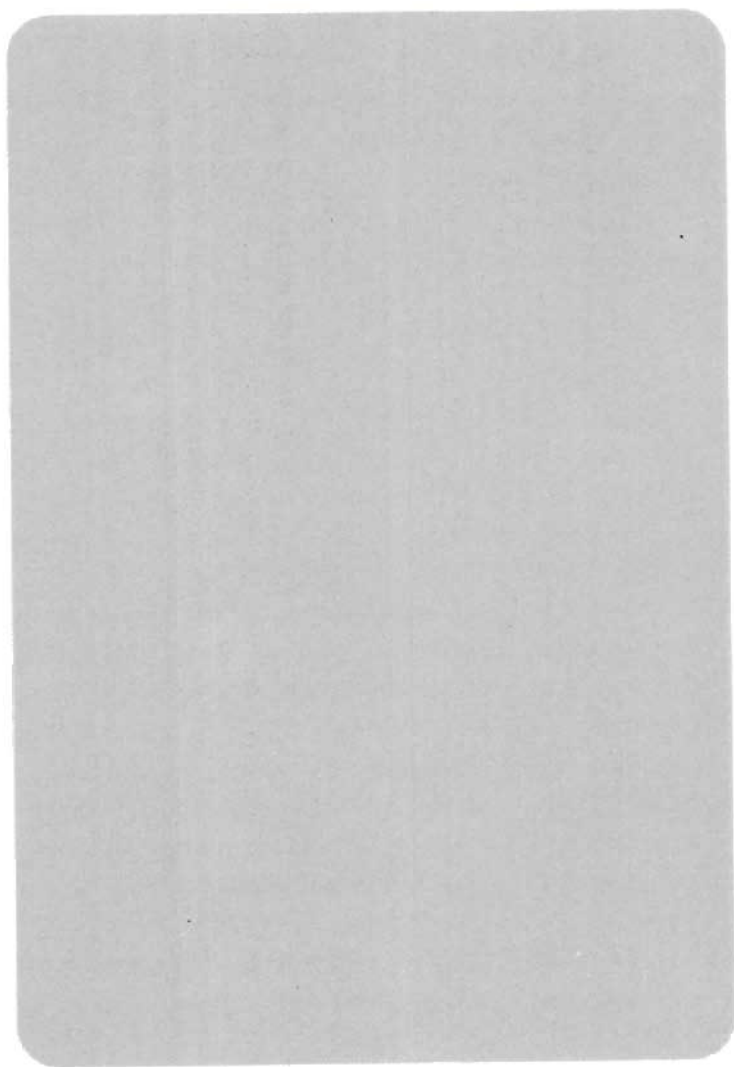
① 하나님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

각되지 않는가?

- ②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단지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가?
- ③ 과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까 의심되는가?

제목:

본문:



제 5 과

오직 한 일

찬송 / 265장(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본문 / 빌 3:5-14

들어가면서(서론)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매우 많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임명, 지위, 모임, 계획, 보고, 스케줄.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과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바라볼 때, 그는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요 변증가이지만, 매우 겸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생애는 의무와 책임으로 가득했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13절). 비록 바울이 신실한 종이었고,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며, 그리고 예수께 순종하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아직 다 감당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인생의 경주가 많이 남아있다고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는 매우 바쁜 나날 속

에서도, 그는 우리에게 '오직 한(가지) 일' 을 좇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고, 그를 집중시키고 있는 '오직 한(가지) 일' 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쏟아 붓고라도 반드시 잡으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래의 질문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 5-6절 :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② 7-8절 : 바울은 지금 자신의 세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③ 8-9절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④ 10-11절 :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⑤ 12-14절 : 의로 말미암는 부활에 동참하기 위한 바울의 각오는 무엇인가?

2. 본문 중에서 특별히 13절에 나타나는 '오직 한 일' (but one thing I

do)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13절 후반부에 나오는 '뒤에 있는 것' (what lies behind) 입니다. 즉 '오직 한 일(한가지 일)'은 꾀대를 향하여 잡으려고 쫓아가야 하는 일이고, '뒤에 있는 것'은 속히 잊어버려야 할 일이란 뜻입니다. 이제부터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오직 한(가지) 일'에 대한 의미는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로 여기고 ()를 아는 ()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로 여기며 대신에 ()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라는 말을 ()번씩이나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것, 또는 잡으려고 쫓아가는 '오직 한(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② '뒤에 있는 것'에 대한 의미는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꾀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던 율법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뒤에 있는 것'을 포기한 이유는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그 ()과 그 ()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잊어버리고 싶었던 '뒤에 있는 것'은 것은 바로 ()였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됨으로 물리칠 수 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잊어버리기 원하는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③ '오직 한(가지) 일'은 같은 13절에서는 '앞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

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된 그것을 ()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빌1:21에 더욱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 것이 그리스도니 ()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므로 바울이 추구하는 ‘오직 한 일, 또는 ‘앞에 있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께 붙들린 바 되고, 오직 예수를 붙드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일에는 멀어졌다가 주일날에만 가까이 가십니까?

④ 바울이 추구하는 ‘오직 한(가지) 일’은 14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을 얻기 위해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고전 9:25에서는 ()아니할 것을 얻으려 한다고 하였고, 딤후 4:8에서는 ()을 얻고자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장차 얻게 될 면류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와 대안은 무엇입니까?

⑤ 바울은 ‘오직 한(가지) 일’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전5:19을 통해서 성령을 () 말며, 엡 4:30을 통해서 성령을 ()하지 말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한가지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하고 날마다 ()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예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눅9:23).

나가면서(결론)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그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아 매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과거에 있었던 상처나 불행, 죄와 세상적인 것에 끌려다니던 일들은 모두 소멸되도록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도록 요청하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요청하십시오.

제목:

본문:

Blank area for sermon notes.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32 과

마 음

찬 송 / 189장
읽을 말씀 / 빌 2:5-8
외울 말씀 / 잠 4:23

1.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의 정원의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려움이 있음, 복잡함, 질서가 없음, 세상 욕심으로 가득참 등)

마음의 영적현실

다음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렘 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
요마는

렘 17:10 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
실대로 보응하나니

마 15: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횡방이니

마 15: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2. 구원 받지 못한 인간의 마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렘 17:9, 마 15:19)

마음을 향한 주님의 마음

3. 다음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
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
록 하라

딤후 1: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
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
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빌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 2: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
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롬 5:5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딤후 2:22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4.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의 정원을 살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당신 자신의 마음을 비교해 볼 때 가장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같은 부분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의 현실을 직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찬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다음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잠 4:23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히 13:9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5.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변화된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불화살을 날리는 사탄의 꾀계가 있게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히 13:9)

6. 각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을 간단히 말씀하시고 기도제목을 한 두가지 나누시고 난 이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MEMO

07 11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1년 4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윤희, 안창덕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남성구역예배공과 : 이준경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